

# '육탄용사스님' 자비행 30년



◇금봉스님(왼쪽)은 30년동안 무의탁노인과 고아들을 정성껏 돌봐왔다. 사진은 익산보훈지청에서 스님을 위한 모습. 사진제공=익산보훈지청

## 금봉스님 6·25때 포탄안고 적진에 54년 출가... 고아·무의탁노인 도와

불편한 몸으로 무의탁 노인과 오 갈 데 없는 아이들을 30년째 돌보는 자비행을 펼쳐온 스님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북 정읍시 상평동 용화사 주지 금봉(70) 스님이 그 주인공. 더구나 스님은 6.25 전쟁 당시 수도사단 1 연대 소속으로 중서부 전선에서 포탄을 들고 맨몸으로 적진으로 뛰어

들었던 육탄용사로 허리와 허반신을 크게 다친 4급 상이용사여서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스님은 철원과 연천 일대에서 수도사단 등 7개 사단이 중공군과 맞서 싸워 생존한 3인의 용사를 기려, 국방부가 경기도 연천 태평전망대에 세운 동상 '3인의 용사' 중 일인이기도 하다.

11살때부터 김제 금산사에서 자

란 스님은 51년 입대해 3년여의 군 생활 끝에 수류탄 파편과 총탄이 박힌 몸으로 전역, 54년 정을 내장사에서 보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71년 지금의 용화사에 터를 잡은 스님은 전쟁의 참상을 대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무의탁 노인과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자신보다 노인과 아이들이 먼저 생각했다.

그동안 용화사에서 돌봐 온 노인과 아이는 16명.

노인과 아이들이 속을 썩인 일도 한 두번이 아니었지만, 스님은 용화사에서 모시던 무의탁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경내에 추모비를 세우고 넋을 기리는 한편 고아들은 공부와 결혼을 시키고 생활터전까지 마련해 주었다. 결혼해 스님을 떠난 3명의 고아들은 스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금봉스님은 "불연으로 생활하고 있는 스님의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 뿐"이라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 제2회 일연문화제 14일부터

8월16일까지, 청소년 백일장·학술대회 등 열어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은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스님을 기리기 위한 제2회 일연 문화제를 14일부터 8월16일까지 개최한다. 이 기간에 청소년 백일장, 학술대회, 시 낭송회, 추모다례제가 잇달아 열린다.

먼저 14일 오전 11시 인각사 내에서 전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백일장을 연다.

일연학 학술세미나는 8월14일 오후 1시 군위군청 강당에서 문명대 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열린다.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허흥식 교수가 '삼국유

사의 편찬자와 편찬시기', 성균관대 천해봉 교수가 '판각 및 제조 장소'와 관련된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삼국유사 목판본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판했는지에 대해 학계의 주장이 분분한 가운데, 이들 중론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8월15일에는 인각사 경내에서 시 낭송회와 사물놀이 국악공연을 펼치고, 일연 스님이 입적한 8월16일(음력 7월 8일)에는 추모다례제가 봉행된다. 054)383-1161

김재경 기자

미국에서도 여름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여름 불교학교'가 열린다. 뉴욕불광선원(주지 휘광)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에서 '뉴욕불광선원 어린이 하계 불교 수련회'를 열었다.

## 美서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열어

한마음선원 뉴욕지원·뉴욕불광선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불교 학교를 열어 참선, 108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주지 원공)은 방학을 맞은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1일부터 3일까지 '한마음 여름 불교학교'를 연다.

두 사찰의 여름 불교학교는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민족 종교'인 불교를 통해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이라 정체성을 심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범어사 스님과 신도, 금정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100여명은 6월25일 부산시청앞에서 교문 앞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 미주불교포교 회고 및 심포지엄

미국 캘리포니아 삼보사주지 범휴가 창건 30주년을 맞아 미주 불교 포교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갖는다.

6일 삼보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한국불교의 지난날에 대한 성찰과 발전적인 미래' 주제의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내 한국불교 전문가 등 미주 포교의 산증인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에는 이홍영 UC버클랜드 교수를 사회로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 김형근 미주현대 불교발행인, 조은수 미시건 주립대 교수, 김재범 전 I.C.C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자로 나선다. 김재경 기자

김재경 기자

## 교문앞 24층아파트 "웬말"

정문 20m거리 범어사등 교육환경 고려 백지화 요구

종립학교인 부산 금정중학교 정문 20m 거리에 24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범어사 스님, 학부모,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화종합건설에 의해 추진중인 이 아파트는 금정중학교 서편 담장과 맞닿아 있으며 학교 정문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져, 허가가 날 경우 학교의 조망권과 수업환경이 크게 침해 받는다는 것이 학교측의 주장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준 24층 92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건립에 대해 학교 법인 사찰인 범어사 스님, 학부모, 학생 등 1백여명은 6월 25일 부산시청앞에서 건축 허가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여여선원장 정여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지중스님, 학부모 및 학생 대표는 "교문 입구에 고층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발생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중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

을 받을뿐 아니라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청 관계부서에서는 "주상복합건물로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법적 허자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부산시교육청 황윤식 계장은 "직접 방문해본 결과 아파트 위치가 학교의 조망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천미희 기자

## 통도사 뒷산 이름 '영축산'으로 결정

영취산 등 4개의 산 이름으로 불려져 혼란을 겪던 양산시 허북면 지산리 통도사 뒷산이 영축산으로 공식 결정됐다. 6월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국립지리원 중앙지명위원회는 최근 심의회를 열어 이미 고시된 영취산을 영축산으로 변경고시키로 의결하고, 이를 양산시와 경남도에 공식 통보했다.

천미희 기자

## 목탁소리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6월26일 오전 조계종 교육원장실에서는 교육원장 무비스님을 비롯한 교육원 간부스님과 교육위원장, 역경위원장 등 종단의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승가대학 인가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승가대학은 불국사, 파계사, 수덕사 승가대학 3곳이었으며, 불국사 승가대학은 심사자 7인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러나 파계사와 수덕사 승가대학 심의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파계사 승가대학의 경우 사고반과 대교반 강의실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반면, 6개월 이내 건물 확보를 조건으로 인가해 주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덕사 승가대학은, 학장이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와 조건이 미흡해도 총림

## 무너진 원칙

에는 강연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맞았다. 그리고 논의 끝에 파계사 승가대학은 보류, 수덕사 승가대학은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가 진행되면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수덕사 승가대학 학장의 자격문제였다. 조계종이 지난해 6월 제정 공포한 '교육교역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학장 자격을 승당 20년 이상에 강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덕사 승가대학 학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임명된 데다 승당도 10년 밖에 되지 않아 명백히 자격미달이었다.

반면 파계사는 설치조사 결과 7개 인가 요건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고도 2개월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수덕사와는 달리 인가가 보류됐다. 파계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조계종단의 승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스님들은 결국 원칙보다는 명분을 택한 것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간부들은 매달 원로스님 친견법회를 진행하며 신행혁신을 다짐한다. 6월12일 불국사 조실 지중스님을 방문한 20여 일원들.

## 매달 원로스님 순례친견 중신회, '신행혁신' 다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세 달째 원로스님 친견법회를 진행해 새로운 신행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6월 12일 원로의원 지중스님(불갑사 조실)을 친견한 것을 비롯 그동안 친견한 원로스님은 조계종 중정 법전,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 등 세 분. 중앙신도회는 오는 27일 오후 1시 경남 함양 황대선원에서 원로의원 성수 스님도 친견할 예정이다.

12일 지중 스님은 "참선을 해야한다. 참선이 어렵거나, 나이가 들어 정신이 쇠약해지면 영멸을 열심히 해야한다. 무엇이든 나에게 와 닿는 것으로 한가지만 믿고 나가라"고 당부했다.

중앙신도회는 매번 신도회 간부들이 20여명씩 참석해, 신도회의 나아갈 방향과 재가 지도자로서의 역할 및 수행지침을 원로스님에게 묻는 등 신행을 중시하는 신도회로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아래, 매달 고승 친견순례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당뇨·고혈압

### 당뇨병 혈당강아 조절제

# 국내약초 100% 약생정 生人精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아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쓴맛이 배합하여 생인하였으므로 입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박용시 나타나는 증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맛수가 줄어들어집니다.
- 산장기능 약화에 의한 볼배김이 해소됩니다.
- 불안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면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아됩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후에 눈물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내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른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 복용분과 약초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 생인정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무치념을 성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면담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용승복 직원일동 -

원색형	원색형	2.동 방	3.동무늬
1.적삼, 바지, 조끼	1.적삼, 바지, 조끼	2.동 방	3.동무늬
₩130,000	₩130,000	₩110,000	₩120,000
원색형	원색형	2.동 방	3.동무늬
1.적삼, 바지, 조끼	1.적삼, 바지, 조끼	2.동 방	3.동무늬
₩130,000	₩130,000	₩110,000	₩120,000

※ 순면(무늬 있는 면류) ₩130,000  
※ 고급 구김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장삼, 가사, 바람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가능합니다.

## 해동승복

대구 교촌역에서 10분 봉우정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 佛經漢文教育科

▶ 男·女 통신반 募集 ◀

- 募集期間
  - 7월 5일 ~ 8월 15일 (기간연수)
- 募集課程
  - 大學院 과정
- 教育科目
  - 무량외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보현보살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 教育期間
  - 3년(6학기)
-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 1회 출석특강
- 卒業惠澤
  - 수확증서 수여
  - 불경한문기사 자격증 수여(심사 합격자)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무료)

※ 자세한 입학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 法華三部經講院

책임교수 崔光永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053)952-8711 · 017)501-8711

## 간(肝)

간 지방간 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종닭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울 참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담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망아지 물이 나온 뒤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 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미를 토종 [민속농원]